

韓國 農村地域의 類型區分

李 正 煥*

- I. 序論
- II. 研究方法과 分析節次
- III. 因子의 解釋 및 因子得點의 分布
- IV. 農村地域의 類型區分
- V. 要約 및 結論

I. 序論

韓國의 農村은 최근에 들어 급속한 산업화 과정을 통해 空間分化를 거듭해 오고 있으며 이러한 분화 과정을 통해 農村地域의 공간 특성 역시 급속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都市化·工業化에 따른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난 空間分化는 地域·空間上에서 차별적인 효과로 작용하여 地域間 발전 격차를 비롯한 地域問題를 야기시키고 있다.

이러한 地域問題는 地域이 갖는 社會·經濟的問題의 空間的 豐厚이며 (Berentsen, 1981). 地域政策은 空間的 不均衡의 해소와 지역적인 차원의 社會·經濟的인 제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동시에 地域問題는 지역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에 접근하는 地域政策 또한 다양한 지역 특성에 기초해서 수립되

어야 한다.

農村開發과 관련된 政策이나 計劃의 樹立 역시 農村地域이 지닌 개성과 특성의 弊害이前提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農村地域은 수많은 구성 요소에 의해 형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각要素는 地域差를 가지면서 복잡하게 관련되어 있는複合地域(multiple region)이다. 이러한 農村地域의 특성을 해명하기 위해서는 지역 구분을 통한 歸納的 일반화의 절차에 의해 보다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다.

그리나 지금까지 韓國 農村에 대한 類型區分은 주로 單一指標나 소수의 自然指標에 의한 農業地域 區分이 중심이 되어 왔다. 따라서 그와 같은 연구로는 산업화 과정에서 날로 복잡성을 더해 가고 있는 韓國 農村地域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무리가 따르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本研究는 과거 農業地域 구분에서 나타난 方法論的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산업화 과정에서 복잡한 空間分化를 겪고 있는 韓國 農村地域의 귀납적 一般化를 시도하기 위한 農村地域의 類型區分에 연구의 목적을 둔다.

* 貢任研究員.

II. 研究方法과 分析節次

本研究에서는 多變量 數理技法인 因子分析法 (Goddard and Kirby, 1976; 清水利信·齊藤耕三, 1976; 芝祐順, 1981) 과 群化分析法 (Ward, 1963, 236-44; Johnston, 1968, 575-89; Hirst, 1977, 99-103) 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分析法을 이용한 地域構造의 分析은 定量的인 方法으로 종합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多面的인 地域의 性格을 파악하는 중요한 수단이며, 최근 空間科學 분야에서 활발히 이용되고 있는 기법이다(齊藤一彌, 1982, p.75).

多指標를 사용하여 地域區分을 행할 때,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첫째, 고려해야 할 무수히 많은

은 속성들 중에서 의미있는 지표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둘째, 多指標를 사용해서 얼마나 객관적인 구분을 행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두 가지 질문으로 집약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최초로 地理學에 因子分析法을 도입한 베리 (Berry)에 의해 극복될 수 있었다(Berry, B.J. L., 1961, 263-82; 1967 219-51). 즉, 그는 위의 첫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택한 m 개의 속성 중에서 소수의 n 개의 독립한 共通因子를 구하고, 그것을 地域區分의 指標로 선택하였다. 두번째 문제점은 구해진 共通因子가 만든 n 次元 直交空間上의 因子得點에 의해 각 지역을 위치하도록 하여 類似性을 거리로 바꾸어 분류해 地域區分을 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었다.

本研究에서는 農村地域의 公간 特성을 파악하기 위해 共通因子模型의 因子分析法을 사용하였

表 1 入力 變數一覽

人 口	1. 인구밀도 a	工 業	19. 종업원 1인당 공업생산액 c	所 地 方 得 財 及 政	38. 가구당 평균소득 i
	2. 인구증가율 a		20. 가구당 공업부가가치 c		39. 재정자립도 e
	3. 전출인구/전입인구 a		21. 접객업소수(인구천인당) d		40. 1인당 투자비 e
	4. 가구당 인구 a		22. 환경업소수(") d		41. 1인당 지방세 부담액 e
	5. 성비 a		23. 시장수(인구만인당) d		
家 口	5. 농가율 b	學 生 比 人 率	24. 금융기관수(") d	地 域 接 結 近 合 度	42. 지역내 결합도 i
	6. 비농가율 b		25. 의사수(") d		43. 10만 도시까지 거리 i
	7. 전업농가율 b		26. 병상수(") d		44. 100만도시까지 거리 i
	8. 1종겸임농가율 b		27. 국민학생 d		
	9. 2종겸임농가율 b		28. 중학생 인구 비율 d		
土 地 利 用	10. 가구밀도 a		29. 고등 " d		
	11. 논율 d	農 業 基 盤	30. 기계화 정도 i	農 林 漁 業	46. 가구당 재배업 부가가치 f
	12. 밭율 d		31. 경지 정리율 e		47. " 목축업 " f
	13. 과수원 면적 d		32. 수리안전답률 e		48. " 농업서비스업 " f
	14. 목장용지 d		33. 도로포장률 d		49. " 임업 " f
礦	15. 임야율 d		34. 상수도보급률 d		50. " 어업 " f
	16. 내지면적 d		35. 주택보급률 d		
	17. 광업종사자수(인구천인당) c		36. 가구당 자가용 보급률 h		51. 대지 지가변동 g
	18. 광업종사자수(") c		37. " 접화 보급률 d		52. 전답 " g
					53. 임야 " g

출처 : a) 인구 및 주택 간이 센서스(경제기획원) '85

c) 광·공업 센서스 '85

e) 농업기반 조성사업 통계 ('86)

g) 건설통계 편집 ('86)

i) 농림수산부·농촌경제연구원 원자료 및 편집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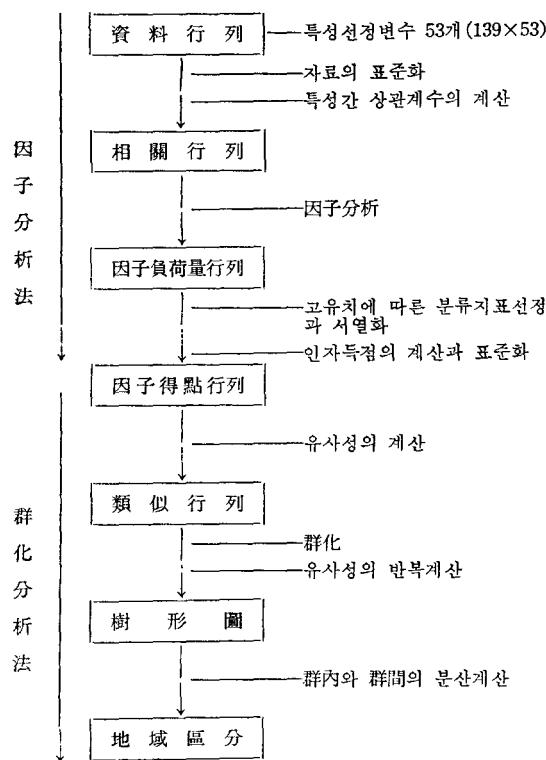
b) 농림수산부

d) 각도 통계연보(1986)

f) 주민소득연보('79)에서 추계

h) 내무부 발행 행정지도(군) '84

表 2 分析節次



이상의 入力變數를 사용하여 分析된 절차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表 2)。

첫째, 入力變數를 표준화하여 分析單位(郡)을 行으로 하고 變數를 列로 하여 139×53 의 資料行列을 작성하였다.

둘째, 固有值 1.0 이상의 因子를 추출하고, 入力變數와 因子間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因子負荷量과 共通度를 산출하였다.

세째, 모든 因子의 단순화를 위해 바리막스회전을 행하였다.

네째, 각 郡의 特定因子의 상대적인 중요성을 파악하기 위해 因子得點을 구하였다.

다섯째, 각 因子의 因子得點을 入力變數로 하여 群化分析을 행하고, 그 결과에 의해 農村地域의 類型分析과 各類型別 地域性格을 설명하였다.

III. 因子의 解釋 및 因子得點의 分布

1. 因子의 抽出

研究對象의 分析單位가 되는 139개 郡에 관하여 53개 변수의 值을 구한 다음, 139×53 의 資

表 3 固有值와 說明量

因 子	固 有 值	說 明 量	累 計 說 明 量
1	16.86	31.8	31.8
2	6.70	12.7	44.5
3	4.04	7.6	52.1
4	3.42	6.5	58.5
5	2.73	5.2	63.7
6	2.15	4.1	67.8
7	1.86	3.5	71.3
8	1.58	3.0	74.3
9	1.28	2.4	76.7
10	1.14	2.2	78.8
11	1.06	2.0	80.8

고, 地域의 類型區分을 위해서는 Ward의 階層的 分類를 이용한 群化分析을 행하였다. 여기서 分析對象地域은 가능한 實體적인 地理的 個體를 單位地域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現실적인 여건상 불가능하므로 비교적 獨立적인 생활권 단위가 되며 統計資料의 蔢集이 가능한 139개 郡을 單位地域으로 하였다.

사용된 統計資料는 農村地域의 구성 요소로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人口, 家口, 土地利用, 產業 및 農業基盤, 所得, 生活環境施設, 地方財政, 都市와의 接近度, 地價變動率 등과 관련된 53개 변수를 선정하였다(表 1). 선택된 變數들은 가급적 單位地域의 면적 등의 영향을 적게 하기 위해 비율로 바꾸고, 變數의 중복을 피하려고 노력하였다.

表 4 共 通 度

變 數	共 通 度	變 數	共 通 度	變 數	共 通 度	變 數	共 通 度
1	0.97763	16	0.92999	31	0.81941	46	0.93386
2	0.90318	17	0.98020	32	0.57184	47	0.81959
3	0.86244	18	0.97546	33	0.64487	48	0.81337
4	0.79250	19	0.76082	34	0.63753	49	0.62362
5	0.96130	20	0.82141	35	0.77996	50	0.89028
6	0.99858	21	0.94505	36	0.95915	51	0.92824
7	0.97884	22	0.99142	37	0.99214	52	0.88469
8	0.99830	23	0.99102	38	0.87784	53	0.95559
9	0.94387	24	0.75961	39	0.71483		
10	0.98082	25	0.95108	40	0.91201		
11	0.86466	26	0.91287	41	0.74898		
12	0.84907	27	0.66089	42	0.85821		
13	0.76102	28	0.99047	43	0.79058		
14	0.68634	29	0.99171	44	0.55467		
15	0.68943	30	0.82910	45	0.67045		

料行列을 작성하고, 因子分析을 행하였다. 因子分析의 결과로 얻어진 固有值(eigen value) 1.0 이상의 11개 因子를 共通因子로 하여 바리막스회전을 행하였다. 회전 후에 나타난 變動說明量, 因子負荷量, 因子得點을 설명에 사용하였다.

共通因子인 第1因子까지의 累積變動說明量은 80.8%에 달하고, 各變數의 共通度는 모두 0.6 이상에 이르러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다(表 3, 表 4, 表 5, 그림 1). 分析結果는 53개 入力變數의 5분의 1에 해당되는 11개의 獨立因子가 추출되고 總分散의 80.8%가 이들 因子의 변동에 의해 설명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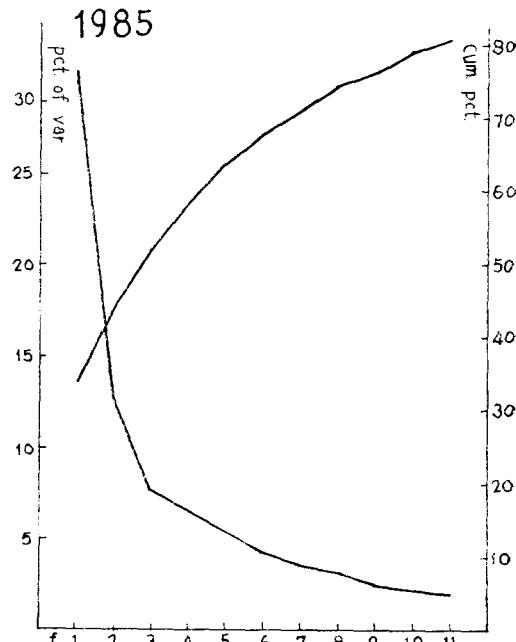
2. 因子의 解釋 및 因子得點의 分布

가. 第1因子 : 종합적인 地域發展 水準

第1因子는 최대의 설명량인 31.8%를 나타내어 第2因子가 갖는 설명량의 2.5배 이상에 달하여 가장 중요시되는 因子이다.

第1因子의 構成變數와 因子負荷量¹을 살펴보면, 鎳·工業과 農業 등 産業經濟基盤이 양호하

그림 1 變動說明量과 累積和



고 教育·의료·生活環境시설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인구 밀도가 높은 위에 계속 인구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地域이다. 그러므로 第1因子는 하나의 요인으로 설명될 수 없는 종합적인 地域發展 水準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¹ 각 인자의 설명에 대해서는 <表 5>의 내용을 참조할 것.

表 5 構成變數 및 因子負荷量

第 1 因 子		第 2 因 子		第 3 因 子	
변 수	부하량	변 수	부하량	변 수	부하량
29. 고등학생 인구비율	0.94932	6. 비농가율	0.96471	20. 가구당 공업 부가가치	0.77373
22. 인구천인당 환경위생업소수	0.94629	46. 가구당 재배업부가가치	0.91207	42. 지역내 결합도	0.70204
23. 인구만인당 시장수	0.94578	48. 가구당 농업서비스업 "	0.73359	40. 1인당 투자비	0.68652
17. 인구천인당 광공업종사자수	0.93824	11. 논 율	0.68020	19. 종업원 1인당 풍업생 산액	0.67575
28. 중학생 인구비율	0.91717	1. 인구 밀도	0.62884	3. 전출인구/전입인구	0.64488
37. 가구당 전화보급률	0.87646	5. 농가율	0.56548	38. 가구당 평균소득	0.55331
36. 가구당 자가용보급률	0.83951	39. 재정자립도	0.55119	21. 인구천인당 접객업소수	0.54638
25. 인구만인당 의사수	0.82058	12. 밭 율	0.50335	4. 가구당 인구	-0.45944
26. " 명상수	0.80038	30. 기계화 정도	0.46095	5. 농가율	0.37614
18. 인구천인당 공업종사자수	0.79447	38. 가구당 평균소득	0.45683	第 5 因 子	
24. 인구만인당 금융기관수	0.70236	13. 파수원 면적	0.41080	변 수	부하량
47. 가구당 목축업부가가치	0.65570	41. 1인당 지방세 부담	-0.38049	16. 대지면적	0.92212
21. 인구천인당 접객업소수	0.61670	8. 1종 경업동가율	0.35920	49. 가구당 임업부가가치	0.56105
40. 1인당 투자비	0.60051	第 4 因 子		12. 밭 율	0.40093
7. 전업농가율	0.59689	변 수	부하량	13. 파수원 면적	0.38193
4. 가구당 인구	-0.53696	53. 임야지가 변동율	0.88435	2. 인구 증가율	-0.35954
2. 인구 증가율	0.53154	51. 대지 "	0.84415	31. 경지 정리율	-0.35631
36. 주택 보급률	-0.47662	52. 전답 "	0.82135	第 7 因 子	
5. 농가율	0.45159	第 6 因 子		변 수	부하량
31. 경지정리율	0.45109	변 수	부하량	14. 목장용지	0.73691
3. 전출인구/전입인구	-0.44921	10. 가구 밀도	0.88964	15. 임야율	0.70256
1. 인구밀도	0.44026	50. 가구당 어업 부가가치	0.79295	13. 파수원 면적	0.46638
30. 기계화 정도	0.42842	9. 2종 경업동가율	0.55185	43. 지방도시와의 거리	-0.45342
42. 지역내 결합도	0.42591	第 9 因 子		第 10 因 子	
38. 가구당 평균소득	0.40534	33. 도로 포장율	0.58591	변 수	부하량
27. 국민학생 인구비율	0.40024	31. 경지 정리율	0.49672	44. 대도시와의 거리	0.57968
第 8 因 子		32. 수리안전답율	0.47394	45. 성 비	0.42008
변 수	부하량	第 11 因 子		第 11 因 子	
41. 1인당 지방세 부담	-0.62096	변 수	부하량	1. 인구밀도	0.53697
6. 비농가율	0.57111	39. 재정자립도	-0.39751	第 12 因 子	
43. 지방도시까지 거리	-0.48637	第 12 因 子		2. 인구밀도	0.53697
36. 가구당 자가용보급률	-0.37242	3. 경지 정리율	0.49672	3. 전출인구/전입인구	0.64488

因子得點의 分布는 首都圈을 둘러싸고 있는 京畿道의 全地域에서 거의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面, 首都圈에서 원거리에 위치한 嶺南 및 湖南地方에서 낮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그림 2). 따라서 首都圈의 영향에 거의 비례하는 空間分布를 나타내고 있다.

나. 第 2 因 子 : 經濟基盤이 양호한 平野村

第 2 因 子는 12.7%의 설명량을 나타내고 있다.構成變數와 因子負荷量으로 보면, 農業基盤이 양

호한 平野地域으로 非農民도 많이 거주하고 있는 동시에 所得基盤 역시 진전하다. 그리고 人口密度가 높고, 田作·果樹農業이 행해지며 1종兼業農도 비교적 높게 나타내는 지역이다. 그러므로 第 2 因 子는 대체로 地域經濟基盤이 양호한 平野農村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因子得點의 分布는 華城, 서산, 청원, 논산, 김제, 정읍, 나주, 해남 군으로 연결되는 西部海岸 平野地方과 안동, 의성, 상주, 월성군 등 嶺南北部內陸 및 南東部의 河川 中上流 盆地地

그림 2 第1因子 (종합적인 地域發展 水準)의 空間分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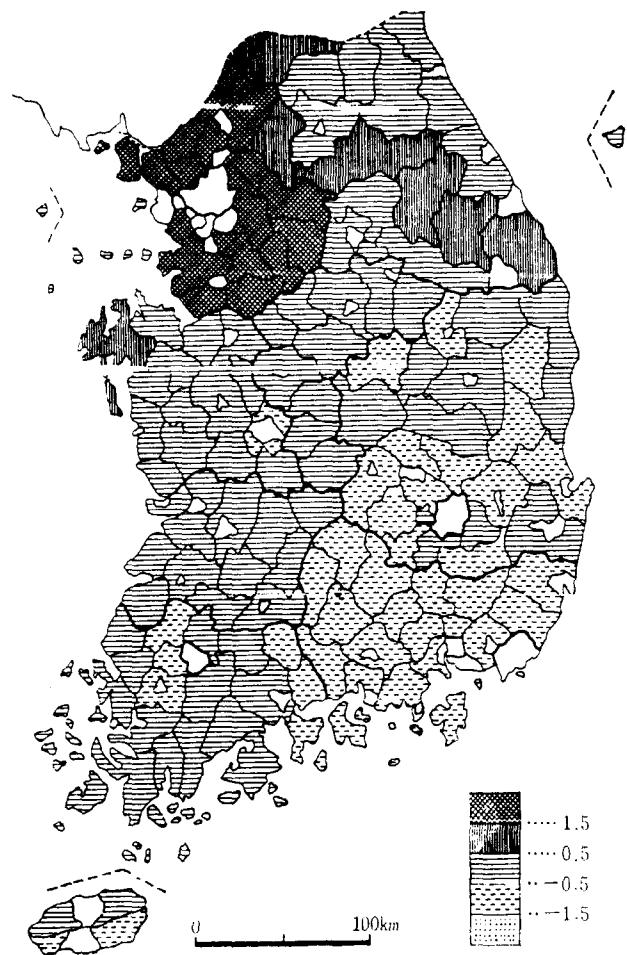


그림 3 第2因子 (經濟基盤의 양호한 平野村) 空間分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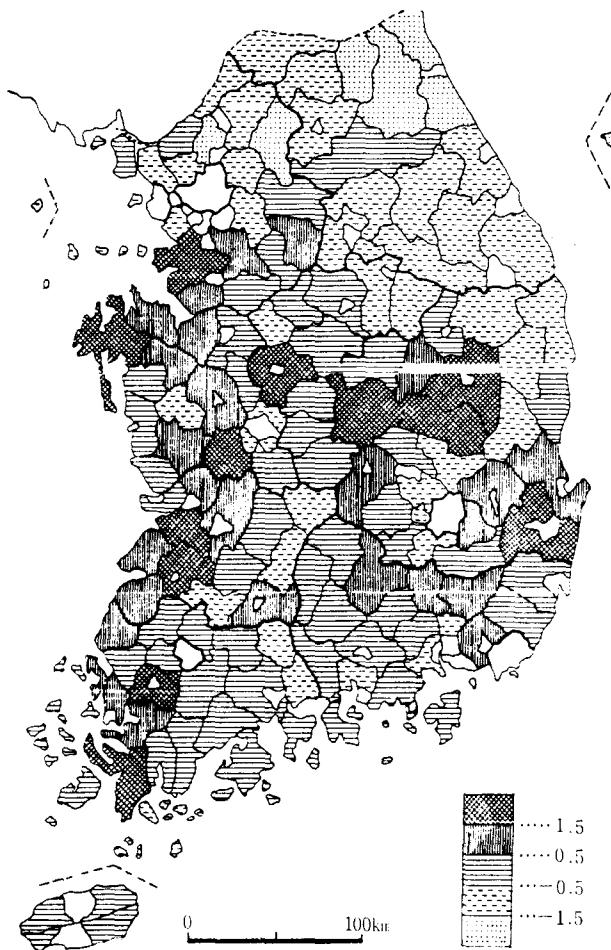


그림 4 第3因子(工業)의 空間分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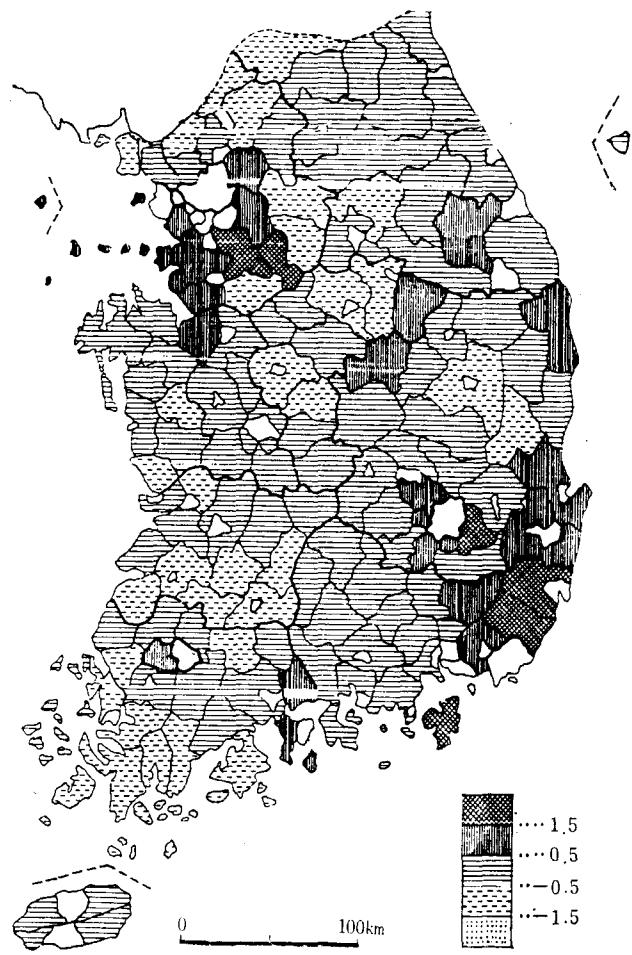


그림 5 第4因子(地價變動)의 空間分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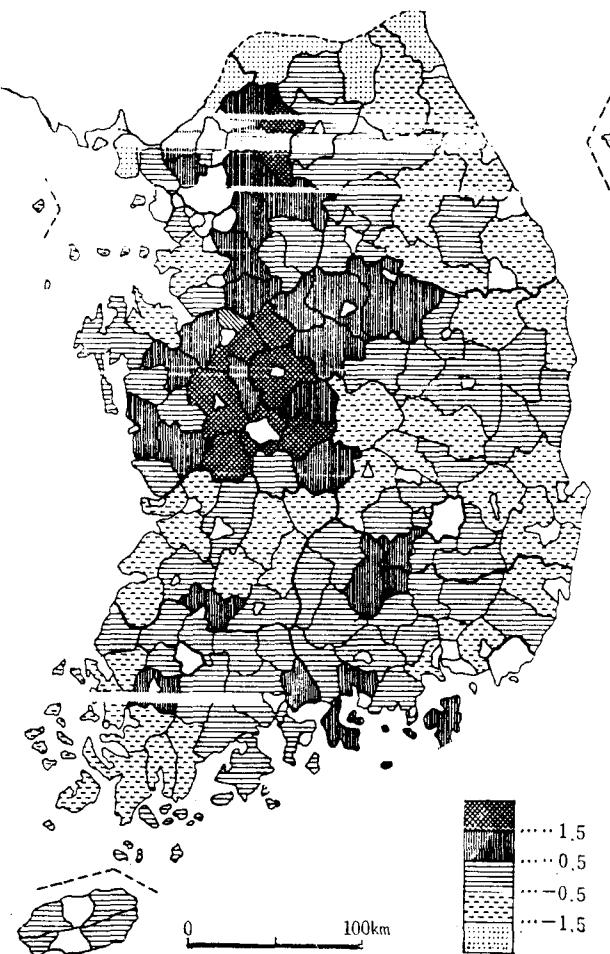


그림 6 第5因子 (면적이 넓은 山間地域)의 空間分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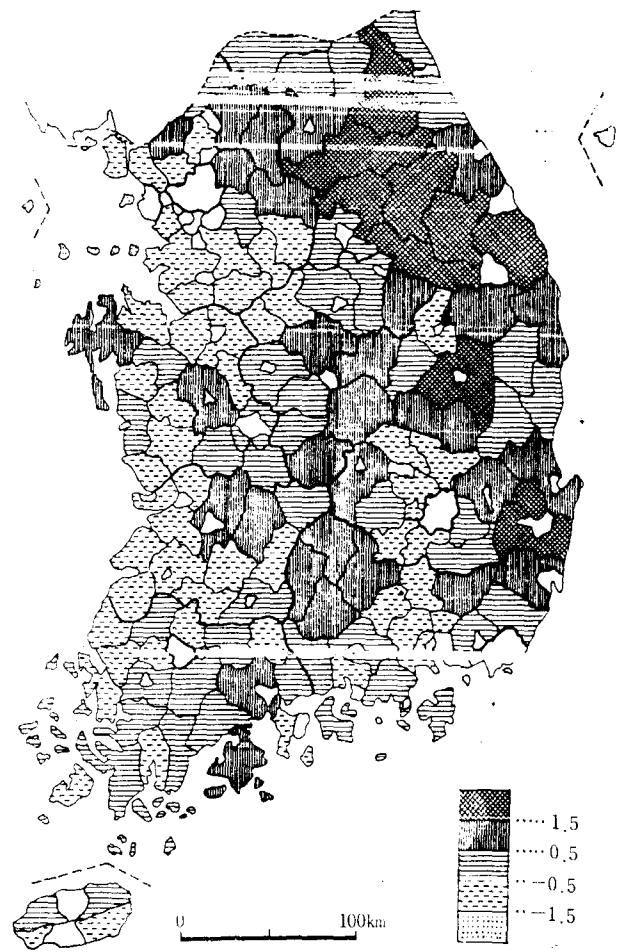


그림 7 第6因子 (漁業 및 兼業農)의 空間分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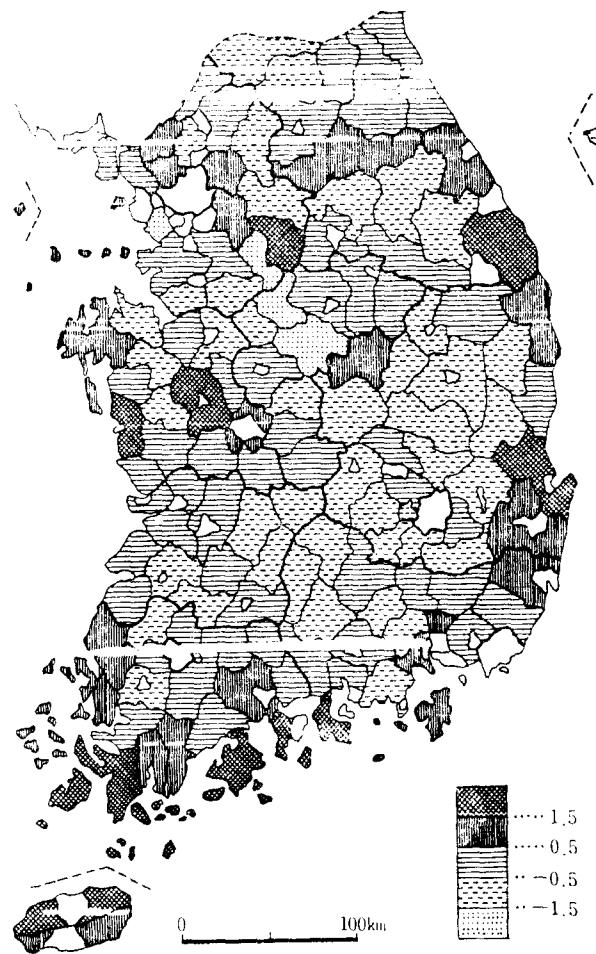


그림 8 第7因子(牧畜·果樹)의 空間分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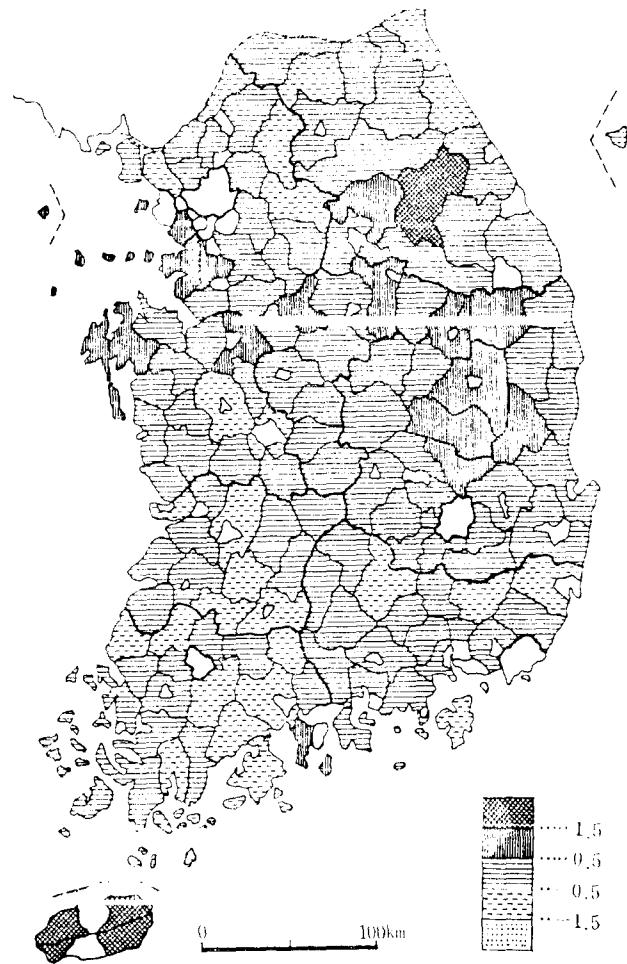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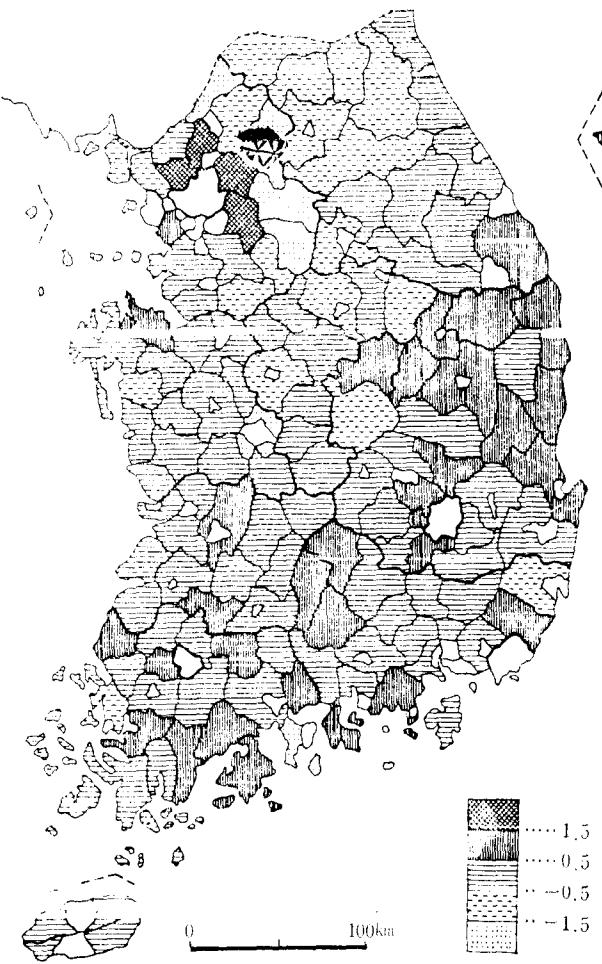


그림 9 第8因子(都市주변의 非農業 또는 低所得地域)의 空間分布



域을 차지하는 地方이 높게 나타난다(그림 3)。 그리고 휴전선 부근의 서울 이북 및 강원 북부 지역과 太白 및 小白 일부 山間內陸地方은 낮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다. 第 3 因子 : 工業

第 3 因子는 7.6%의 설명량을 나타내며, 構成變數의 因子負荷量으로 보면, 工業과 관련된 因子로 해석된다.

因子得點의 分布는 시흥, 용인, 이천 등 首都圈周邊地域과 경산 등 大邱周邊, 그리고 울주, 양산, 거제 등 東南工業벨트에 속한 地域에서 매우 높다(그림 4)。이에 비해 湖南의 中部內陸과 西南海岸, 中部地方의 內陸 일부, 그리고 휴전선에 접한 京畿北部 地方이 비교적 낮다。그것은 京仁工業地域과 嶺南工業 地域의 二代工業 地域에 위치한 지역에서 공업화가 진전되어 왔음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라. 第 4 因子 : 地價變動

第 4 因子는 6.5%의 설명량을 보이며, 地價와 관련된 變數만이 높은 正의 負荷量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이 因子는 地價變動을 설명하는 因子로 해석된다.

因子得點의 分布는 大田, 清州를 중심으로 하는 忠淸南北道 地方의 거의 全域과 首都圈 주변의 京畿道 지역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그림 5)。이러한 현상은 서울과 大田을 연결하는 축을 따라 中部高速道路의 건설과 최근의 農·工團地造成 등에 따른 개발의 품을 타고 1980년대에 들어 地價가 크게 상승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그리고 서울 주변의 京畿地方은 서울 大都市圈의 평면적인 확대와 도시화의 영향, 서울의 공장과 대학 등 각종 시설의 이전에 크게 기인한 것으로

로 생각된다。다른 한편, 휴전선과 접한 접적지역과 울릉군은 가장 낮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따라서 地價變動을 나타내는 第 4 因子는 社會·經濟的 변화와 國家政策의 영향에 민감한 반응을 나타낸 결과로 해석되며, 이에 따른 期待心理效果도 상승 작용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마. 第 5 因子 : 면적이 넓은 山間地域

第 5 因子는 5.2%의 설명량을 나타낸다。構成變數가 갖는 因子負荷量으로 보면 第 5 因子는 면적이 넓은 山間地 農村地域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가구당 林業附加價值가 높고 밭의 비율과 果樹園 면적이 넓다。그리고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山間地 農村의 특성을 반영하며, 耕地整理率이 낮은 것은 山間地의 谷間에 耕地가 분포해 있기 때문이다。그리고 대지면적이 넓은 것은 면적 자체가 넓기 때문에, 그에 비례해서 넓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因子得點의 分布는 인제, 홍천, 횡성, 평창, 영월, 정선, 삼척 등의 太白山間 地域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小白山間地와 太白山地의 末端部에 해당되는 嶺南 東海岸地域이 높게 나타난다。다른 한편, 면적이 좁은 울릉, 용진 등 도서 지방이 가장 낮고, 서해안 平野地域과 洛東江 유역의 平野地帶에 위치한 지역은 비교적 낮게 나타나고 있다(그림 6)。

바. 第 6 因子 : 漁業 및 兼業農

第 6 因子는 4.1%의 설명량을 나타내며, 構成變數의 因子負荷量으로 보면 漁業 및 兼業農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因子得點의 분포는 진도, 해남, 완도, 고흥, 여천, 남해를 중심으로 한 西南海岸地方과 동해

안의 영일과 삼척, 서해안의 보령, 제주도의 북제주군 등 어촌이 발달한 海岸地方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중부 내륙 및 영남 내륙에 걸친 광범한 지역이 낮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해 내륙의 공주, 여주 등과 같은 일부 지역에서 높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겹겹농가 및 가구 밀도와 관련된 것으로 생각된다(그림 7)。

사. 第7因子：牧畜·果樹

第7因子는 3.5%의 설명량을 나타낸다. 構成變數의 因子負荷量으로 보면, 이因子는 牧畜·果樹農業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因子得點의 분포는 대단위 목장이 입지하는 평창군과 제주도의 2개 郡이 특히 높고, 화성, 시흥, 천원, 서산, 음성군 및 嶺南中北部 内陸地方이 비교적 높고 나타나고 있다(그림 8). 반면에 湖南西部와 京畿北東部 및 慶南의 일부 지방에서 낮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아. 第8因子：都市周邊의 非農業 또는 低所得地域

第8因子는 3.0%의 설명량을 나타내며, 構成變數의 因子負荷量으로 볼 때, 이因子는 都市 주변에 위치한 비농업적 요소를 많이 가진 지역이거나 또는 所得基盤이 불리한 지역의 성격이 양극 구조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된다.

因子得點의 分布는 서울의 郊外居住地域의 성격을 띠고 비농민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고양, 양주, 남양주, 광주郡이 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東·南海岸地域의 漁村과 内陸地方의 小白山間部를 차지하는 일부 지역에서 비교적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그림 9). 여기서 海岸地方과 都市 주변은 非農家와 그리고 内陸은 低所得과 관련되어 나타난 현상

으로 생각된다. 반면에, 京畿·江原 및 忠淸의 内陸地方은 낮은 分布를 보이고 있다.

자. 第9因子：農業基盤施設

第9因子는 2.4%의 설명량을 보이며, 構成變數의 因子負荷量으로 보면 도로 포장율, 경지정리율, 수리안전답율과 관련되어 農業基盤施設水準을 나타내고 있다.

因子得點分布는 경기도의 김포, 파주, 고양, 평택 등과 경북의 경산, 달성, 경남의 밀양, 의창 그리고 광산·남제주군이 높은 반면에 양주, 시흥, 화성, 용인과 청원 그리고 완도, 울릉군 등 도서지방은 낮은 분포를 보인다(그림 10). 대체로 平野畠作 地帶가 아니면서 비농업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지역은 대체로 낮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된다.

차. 第10因子：遠隔地域

第10因子는 2.2%의 설명량을 보이며 構成變數의 因子負荷量은 都市와의 거리가 먼곳으로 나타나고 있어 遠隔地의 성격을 보여 준다.

因子得點에 있어서는 울릉, 거제군 등 도서지방과 忠南西海岸 및 정선군 등이 높고, 대도시에 인접한 지역은 대체로 낮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그림 11).

하. 第11因子：人口密度 또는 財政自立度

第11因子는 2.0%의 설명량을 나타내어 설명력이 가장 낮다. 이因子는 인구 밀도와 財政自立度가 관련되어 구성된因子이다.

因子得點分布는 인구 밀도가 높고 財政自立度가 낮은 西部平野地域 인구 밀도는 높지 않으나 財政自立度가 낮은 太白山間地域이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그림 12). 반면에 수도권과 嶺南

그림 11 第10因子(遠隔地域)의 空間分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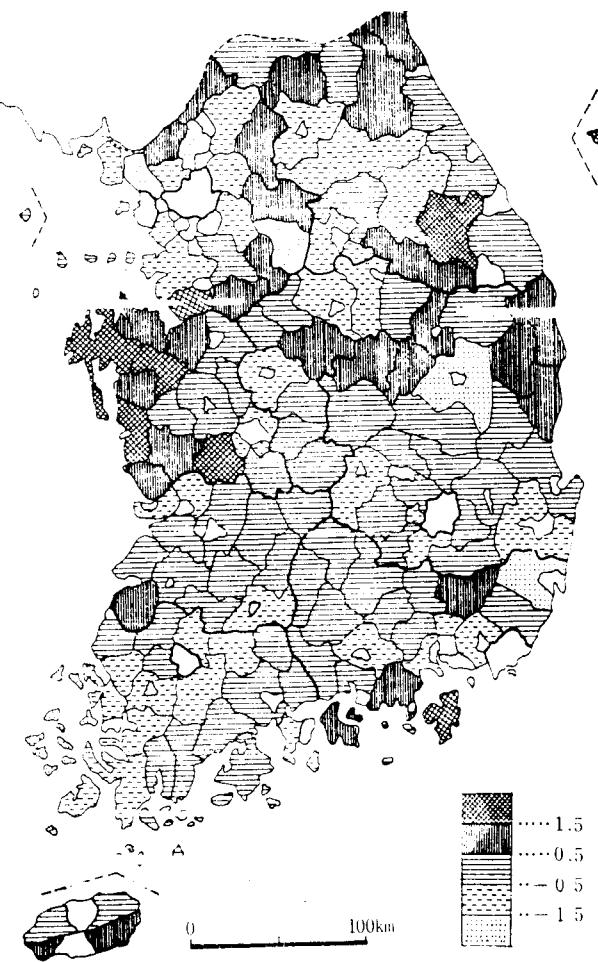


그림 10 第9因子(農業基盤施設)의 空間分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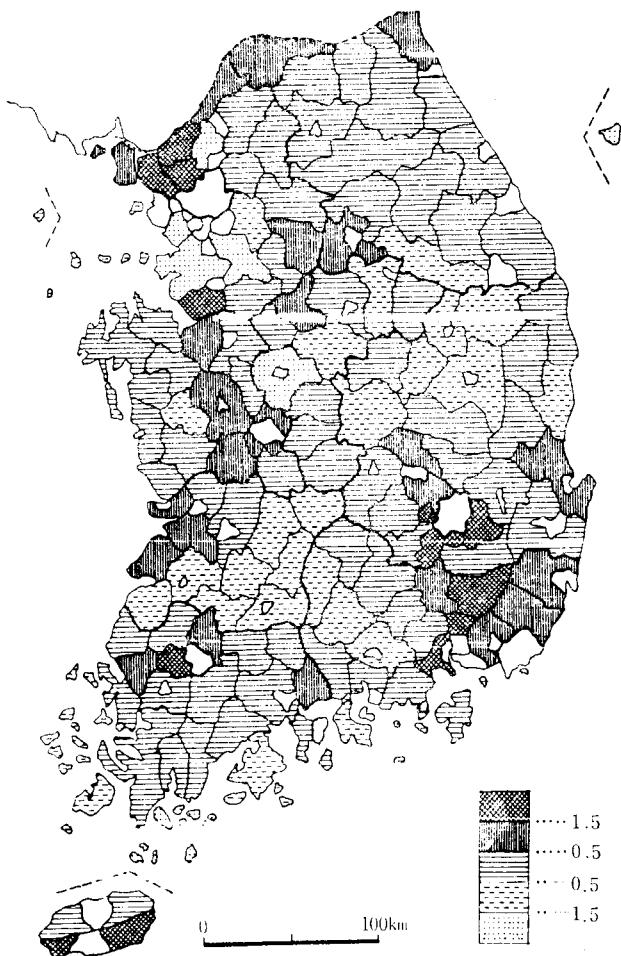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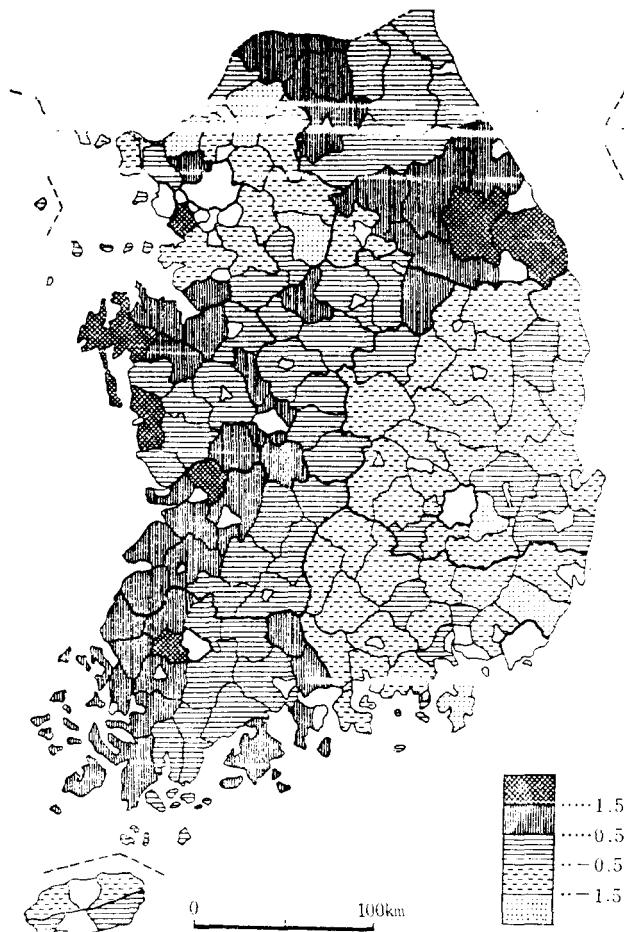


그림 12 第11因子 (人口密度·財政自立度)의 間空分布



地方은 비교적 낮다. 따라서 이러한 空間 분포는 京釜軸의 京仁, 嶺南과 그 反對의 太白·湖南이 分리된 兩極 현상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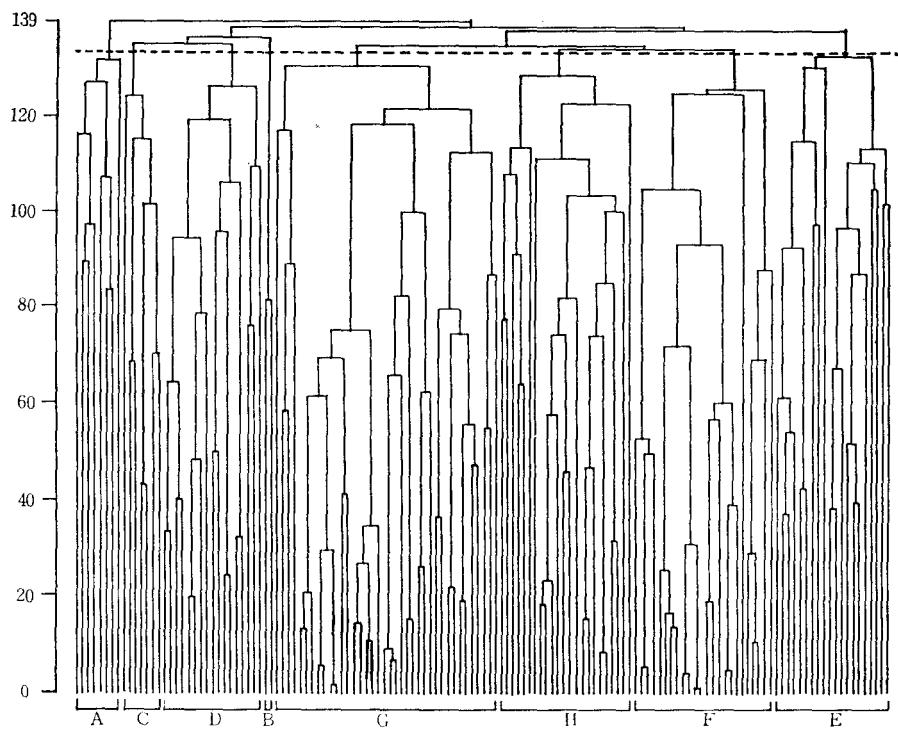
IV. 農村地域의 類型區分

1. 群化패턴

11개 因子의 因子得點을 기초로 ward의 계층적 분류를 행하고, 그 결과를 樹形圖로 나타내

었다〈그림 13〉. 139개의 分析對象 郡이 群으로 결합되어지는 지역의 群化 패턴은 경북의 청도와 경남의 고성 군의 통합으로 시작되어, 강진과 장흥군, 청송과 영풍 군으로 이어지는 순서를 보이고 있는데 群화의 초기 단계에서는 인접하고 있는 郡이 먼저 통합되어 가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群화 패턴이 가장 늦게 이루어지는 郡들은 首都圈 주변과 삼척, 정선, 홍천, 평창군 등의 太白山地地域 그리고 옹진, 울릉, 완도 군의 도서지역 및 기타 여주, 공주군 등이다.

그림 13 農村地域의 群化 패턴(樹形圖)



群化가 늦게 이루어지는 이들 郡들은 地域特性이 특이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首都圈 주변의 양주, 남양주, 광주, 고양, 화성, 용인, 이천, 시흥 등 8개 郡은 서울市內 버스 노선이 거의 개설된 지역으로서 서울大都市 影響圈에 위치해 居住地郊外化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이에 따른 복잡한 地域分化의 양상이 전개되고 있음을 잘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비교적 초기 단계에서 결합되어 群을 형성해 가는 地域群으로는 西南海岸의 平野農村地域과 嶺南內陸農村 地域이며, 이 地域群은 상대적으로 등질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가장 많은 郡이 이들 두 類型 지역에 포함 되고 있다.

2. 類型區分

가. A地域：首都圈 大都市近郊型(8個郡)

A地域은 서울을 둘러 싸고 있는 양주, 남양주, 고양, 광주, 화성, 이천, 용인, 시흥 군의 8개 郡이 하나의 地域群을 형성하고 있다. 이 지역은 다양한 經濟的 產業基盤과 높은 生活環境 시설을 유지하고 있으며 인구가 조밀한 위에 계속해서 증가를 보이고 있는 지역이다.

이 지역은 종합적인 地域發展의 潜在力を 갖춘 地域特性(第1因子)에 의해 특징지워지는 地域群으로서 과수·낙농업(第7因子)도 공통적인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서울의 郊外居住地化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지역 범위내에 위치한 지역이다. 그러므로 대도시 근교에서 나타

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勞賃과 地價가 모두 높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資本과 土地利用이 모두 集約的인 農業經營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都市化에 따른 市街地化의 확대로 인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곳곳에 경기통근자의 住居團地가 늘어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서울에서 移轉해 오는 工場, 大學, 公共機關 등이 증가하면서 都市的 產業과 施設, 그리고 非農民의 人口가 증가하는 地域의 特性을 반영하고 있다.

이 地域群은 비교적 적은 수의 8개 郡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내부 차는 대단히 커서 독특한 성격을 보이고 있다. A₁ 으로 표시된 서울北西部에 위치한 지역은 공통적인 특징 이외에 山地가 많은 지역이면서 낙농(목축)과 과수농업(第8因子)의 성격을 띠며, A₂ 지역은 平野農村地域으로서 工業(第3因子)에 의해 특징지워진다. 그리고 A₃ 지역은 시흥군만이 해당되는데, 좁은 면적에 인구 밀도가 매우 높고, 工業(第3因子)과 관련된 특성이 월등하게 높은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地域內部 差는 서울大都市圈의 영향과 首都圈整備計劃에 따라 유도되고 있는 개발의 政策方向과 대체로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이러한 방향의 地域分化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생각된다.

나. B地域 : 牧畜·果樹·漁村型(濟州道 2個郡)

B地域은 濟州道의 北濟州와 南濟州의 2개群으로 구성되어지며, 漁業 및 겸업 농가율(第6因子)과 牧畜·果樹農業(第7因子)이 특징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地價變動率(第4因子)이 높은 것도 다른 하나의 특징으로 들 수 있다. 本研究에서 入力 변수로 넣지 않은 濟州道가 갖는 관광 기능 역시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70년대

이후 풍부한 天然觀光 자원과 온화한 해양성 기후의 특징으로 인해 국제적인 관광지로 변모해온 점이다. 地價變動率이 높은 것은 이를 간접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인구 구조에 있어 아직도 두드러진 여초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도 이 지역만이 갖는 특징으로서 아주 독특한 지역 특성을 지닌 지역이라 할 수 있다.

다. C地域 : 西南海岸漁村型(7個郡)

C지역은 西南海岸 지방의 고흥, 해남, 통영, 남해, 진도, 신안, 완도 군의 7개 군이 하나의 地域群을 형성하고 있다.

이 地域은 漁業 및 겸업 인구율(第6因子)에 의해 특징지워지는 地域이며 工業(第3因子)과의 관련이 매우 낮은 것도 한 특징이다. C₁으로 나타난 地域은 순수한 어촌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C₂의 완도 군은 地價變動率(第4因子)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최근에 社會·經濟的 변화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示唆해 준다. 즉, 완도는 제주와의 연안 항로가 개설되면서 西南部의 관문 역할의 기능이 높아지고 있고, 또한 多島海國立公園의 海上觀光地 개발과 관련하여 地價 上昇率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라. D地域 : 東南部 工業化進行型(17個郡)

D地域은 東南海岸工業地帶와 大邱周邊의 嶺南工業地帶에 위치한 17개 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工業(第3因子)에 의해 특징지워지고 있다. 이중에서 D₁으로 표시된 양산, 울주, 거제의 3개 군은 大團地의 공단을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서, 지역적으로 산지(第5因子)가 넓고 海岸에 위치해 漁業(第6因子)도 발달하고 있는 지

역적 특성을 갖는다.

이에 비해 D_2 로 표시된 14개 군은 공업화의 정도는 D_1 에 비해 약하나, 농업 기반이 양호한 농촌 지역의 특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전체적으로 보아 D지역은 首都圈 주변 농촌에 비해, 산업 기반이 다양화되지 못한 상태이며 生活環境施設이 취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전통적인 農村地域에 공업의 진출이 진행되는 지역적 특성을 갖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마. E地域 : 接敵地 및 太白山間地型(20個郡)

E地域은 接敵地域으로서 휴전선에 면한 9개 特殊地域과 太白山間地에 위치한 11개 군의 20개 군으로 구성되어 地域群을 형성하고 있다.

이 지역은 地價變動率(第4因子)이 낮은 것 이 공통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어 변화가 없는 정체된 農村地域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地域內의 内部差는 크게 나타나고 있다. E_1 으로 표시된 지역은 農業基盤은 비교적 양호하게 나타나나 遠隔地의 성격이 강하고, 공업화가 아주 미약할 뿐만 아니라 목축·과수농업도 극히 미약한 지역적 특성을 갖는다. 그러나 非農家率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으로 보아 휴전선 부근의 군사 지역의 성격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_2 로 표시된 옹진 군은 漁業 및 겹업 동가율<第6因子>이 높은 성격을 반영해 도서 지역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비해 E_3 로 표시된 11개 군은 넓은 山間地域(第5因子)의 특징을 나타내는 동시에 소득 수준이 비교적 낮은 특징을 보여 落後農村의 특성을 지닌 대표적 지역으로 생각된다.

바. F地域 : 嶺南 內陸型(24個郡)

F地域은 주로 嶺南內陸 지방의 20개 군과 全

北山間 내륙의 무주, 진안, 장수 그리고 을릉군 등, 24개 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地域群은 종합적인 지역 발전의 수준이나 발전 잠재력(第1因子)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財政自立度(第11因子)가 낮은 것이 공통적인 특징이다. 이 地域群의 내부 차에 있어서는 F_1 으로 표시된 18개 군은 원격지로서의 성격을 지니며, 農業基盤과 生活環境施設 수준 등이 취약한 지역적 성격을 지닌 落後農村地域이라 할 수 있다. F_2 로 표시된 영천, 금릉, 의성, 안동, 상주의 5개 군은 하천중 상류의 분지를 끼고 있는 지역으로 인구가 비교적 조밀한 平野 農村의 성격(第2因子)과 넓은 山間地域(第5因子)의 성격이 복합된 지역적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이 地域群에서는 가장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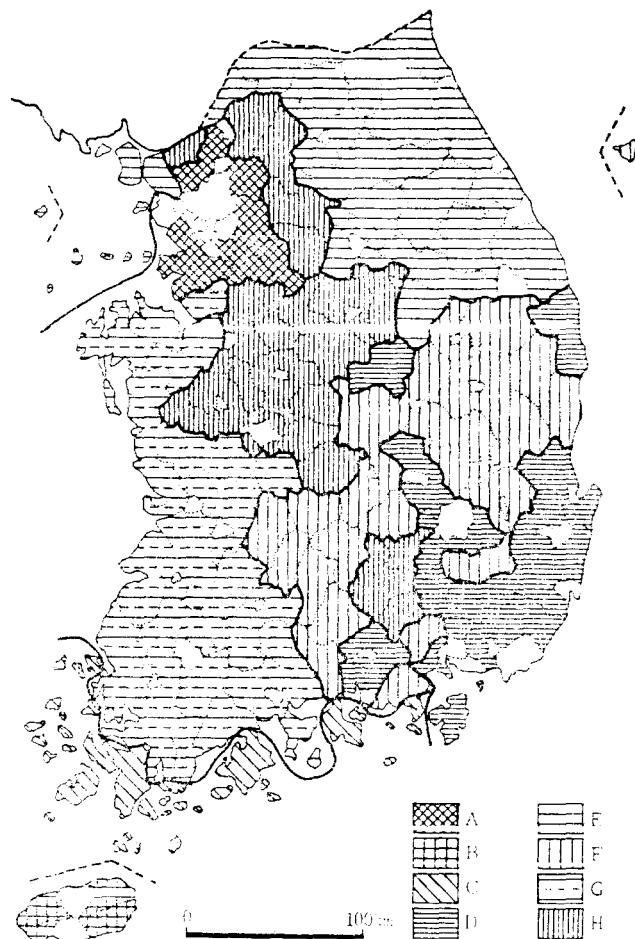
F_3 로 나타난 을릉군은 좁은 면적에 인구 밀도가 높은 원격지의 성격을 지니며, 농업 기반이 극히 불량하고 地價變動率도 낮은 정체된 지역의 성격을 띠고 있다.

사. G地域 : 西部 平野型(38個郡)

G地域은 湖南地方과 忠南地方의 西南部의 平野地域에 위치한 지역으로서 38개 군이 모여 구성된 최대의 地域群을 이루고 있다.

이 地域은 인구가 조밀한 平野地農村(第2因子)이라는 특성을 최대의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중에서 G_1 으로 표시된 23개 군은 높은 경지율과 소득 수준은 양호하나 공업화가 미약하고 農業基盤 시설이 비교적 취약하다. 그러나 G_2 로 표시된 15개 군은 경지정리율이나 수리 안전담율이 높아 農業基盤이 매우 양호한 特性을 지니고 있다.

그림 14 農村地域의 類型區分



아. H地域 : 發展潛在型(23個郡)

H地域은 주로 서울—大田 사이에 위치하는 忠淸內陸 地方과 수도권의 변방에 위치한 京畿道 외곽 지역에 위치한 지방 및 의령, 합천, 고령의 3개 군을 포함한 23개 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지역은 모두 地價變動率(第4因子)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地域 역시 内部差는 두드러져 H₁은 지역의 종합적인 발전수준이 낮고 農業基盤과 工業化가 취약한 지역이다. 그러나 首都圈의 외곽

지대를 차지하는 H₂의 5개 군은 발전 잠재력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大都市圈의 영향력이 크게 미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H₃의 대덕군은 인구가 조밀하고 공업화의 수준이 높은 것은 물론 농업기반과 대도시와의 접근성이 유리한 지역적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H₁ 지역은 서울—대전 사이의 중부고속도로 건설, 농공단지의 집중 분포, 수도권의 일부 기관 및 시설 이전 등과 같은 최근의 국가 정책에 대한 기대 수준과 심리적 영향으로 地價가 상승하고 있고, H₂ 지역은 서울 외곽에 위치

해 대도시의 영향에 따른 地價 上昇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H₃의 대덕군은 최근의 개발붐을 타는 것은 물론, 大田의 都市化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아 높은 地價 上昇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다.

V. 要約 및 結論

지금까지 因子分析과 群化分析法을 사용해서 韓國 農村地域의 類型 구분을 행하고 그 内容을 설명하였다(그림 14).

여기서 발견된 8개의 農村類型의 特징을 중심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農村地域의 空間 패턴은 帶狀의 京釜軸을 따라 분화하고 있는 양상을 뚜렷이 나타내고 있다. 서울을 중심으로 首都圈大都市近郊型 농촌이 형성되고, 그 주변에는 서울—大田을 연결하는 帶狀의 축을 따라 새로운 地域群이 형성되는 地域分化가 진행되고 있다. 반대 방향의 釜山과 大邱를 잇는 축을 중심으로 그 주변 지역에서는 공업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濟州道 地域은 대도시와의 접근성이 불리하나 최근의 國際觀光地 개발에 따른 開發需要의 증대와 國家政策에 힘입어 발전 잠재력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이에 비해 接敵地 및 太白山間地型과 西南海岸漁村型은 接近度가 크게 불리하여 근대적 산업의 입지 효율성이 낮기 때문에 정체 상태에 있으며, 平野型과 嶺南內陸型은 순수한 傳統農村地域으로 역시 地域發展이나 空間分化의 속도가 늦다. 따라서 이들 지역들은 산업화의 逆影響에 의해 인구 감소와 인구의 노령화 현상이 가속화되어 상대적인 낙후성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의 農村地域에서 일어나고 있는 空間分化의 양상으로 미루어 볼 때, 산업화의 영향은 모든 농촌 지역에 대해 동일한 것이 아니라 차별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그것에 의해 야기되는 空間分化도 地域類型에 따라 그 속도나 효과가 서로 상반된 결과를 보여 준다. 따라서 접근성이 유리하고 立地 효율성이 높은 농촌과 그렇지 않은 農村間에는 상반된 空間分化의 누적으로 農村地域內의 발전격차가 커질 것이라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農村地域의 惡循環(Cloke, 1983, p.3 & Shaw, 1979, p.184)과 社會的 費用의 추가부담을 감소시키는 政策開發이 요청된다(Cloke, 1978, pp.603-17)고 할 수 있다. 즉, 상대적인 낙후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湖南과 嶺南內陸, 그리고 太白·小白山間 지역의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國土空間의 새로운 發展軸을 구상하는 國家政策의樹立이 필요하며, 立地 효율성이 낮고 自生力を 잃어가는 農村中心都市와 地方中心都市를 육성하여 인접한 背後農村地域의 產業活動을 지원하는 시책이 강구되는 동시에, 지역 특성에 맞는 類型別 발전 전략과 그것을 구체화시키는 수단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政策課題와 戰略的 수단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地域類型別 開發戰略의 수립이 필요하며, 그것에 선행해서 地域基礎研究와 計劃技法의 개발이 시급한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參考文獻

- 清水共信·齊藤耕三, 1976, 改訂增補 因子分析法, 日本文化科學社.
芝祐順, 1981, 因子分析法, 第2版, 東京大學出版部.
齊藤一彌, 1982, “東京大都市圈の社會·經濟的 地域構

- 造,”人文地理, 第34卷, 第4號, pp. 75-89.
- Berentsen, W.H., 1981, “Regional Change in the German Democratic Republic,” *Annals of A. A.G.* Vol. 71, No.1, pp. 50-66.
- Berry, B. J. L., 1961, *A Method for Deriving Multi-Factor Uniform Regions*, Przeglad Geograficzny, Vol. 33, pp. 263-282.
- , 1967, *Grouping and Regionalization : An Approach to the Problem of Using Multivariate Analysis*, Garrison & Marbel(eds.), Quantitative Geography, pp. 219-251.
- Cloke, P. J., 1978, “Changing Patterns of Urbanization in Rural Areas of England and Wales 1961-71,” *Regional Studies*, Vol. 12, pp. 603-617.
- Cloke, P. J., 1983, *An Introduction to Rural Settlement Planning*, London, Methuen.
- Goddard, J., & Kirby, A., 1976, *An Introduction to Factor Analysis, Concepts and Techniques in Modern Geography* No. 7.
- Hirst, M. A., 1977, “Hierarchical Aggregation Procedures for Interaction Data: A Comment,” *Environment and Planning A*. Vol. 9, pp. 9-103.
- Johnston, R. J., 1968, “Choice in Classification: The Subjectivity of Objective Methods,” *Annals of A.A.G.* 58-3, pp. 575-589.
- Shaw, J. M., 1979, *Rural Deprivation and Planning*, Norwich, Geo Books.
- Ward, J. H., 1963, “Hierarchical Grouping to Optimize an Objective Function,”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Journal* No. 3, pp. 236-244.